


수학과 소식지

2008년 8월 9일 창간호 ■ 발행인 : 김정옥 ■ 편집인 : 김선부, 박대희, 장형근, 소병욱

수학과 소식지를 발간하며..

 수학과장 김정옥



언젠가부터 수학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식지를 발간하자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형성되어 오던 공감대가 이번 수학과 동문 초청 행사를 계기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내외부의 환경은 순수학문으로 상아탑 내에 머무르던 수학과에게도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특성을 강화함은 물론 학생 취업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것과 국제화 등의 다양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학과 구성원들은 연구력 제고는 물론 학생 교육 특히, 졸업생들의 진로 다변화와 취업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졸업생들이 교육 분야 외에도 금융 및 전산 등 수학적 지식 및 그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진로 맞춤형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2006년 BK 사업단에 선정되고, 2007년 대학 교육협의회 전국 수학과 평가에서 연구 및 교육 분야 등 전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간 수학과에 재직하셨던 여러 교수님들과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신 동문들이 다져 온 기본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학과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발간하는 소식지가 교수,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수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개개인이 가진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수학과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따로 하나씩의 점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노력과 추구하는 바가 이어져 멋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작한 뜻은 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사랑 바랍니다.

2008년 8월 9일

수학과 현황

 전임교수



김선부
기하학



변창호
해석학



안승호
위상수학



김동수
기하학



백정선
편미방



임복희
대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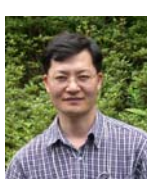
주형관
조합수학



김정옥
응용수학



곽민규
편미방



정영복
복소해석



조종택
기하학



신병춘
수치해석



이영주
복소해석



박대희
위상수학



김혜현
수치해석

 명예교수

정진명 교수님 : 062-223-9735

박원선 교수님 : 062-419-8563

고 임중규 교수님께서는 2001년도에
별세하셨습니다.

 객원교수

김기석 교수 : (주) AIG 생명보험 이사

김범진 교수 : (주) 인터케이피 이사

 교환교수

Mohammad Taghi Darvishi : Hohamad Zakarya
Razi 대학교 (이란)

 학생 현황

수학과 재학생 현황(2008년 8월 6일 기준)		
과정	학년	학생수
학부	1	88
	2	48
	3	56
	4	51
	합계	243
대학원	석사 과정	27
	박사 과정	10

 학생회 활동

MTCC (컴퓨터 동아리)

포키부 (통기타 동아리)

발바닥 (여행 분과)

하늘 (농구 동아리)

수학과 최근 주요 소식

2007학년도 학문 분야평가 수학과
최우수 대학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2007학년도 수학과 분야평가에서 우리수학과는 전부문 최우수, 학생부문 전항목 만점을 받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K 사업단 선정
(수리 계산 및 생명의학 통계 산업단)

수학과는 2006년도 3월부터 국가에서 주도하는 Brain Korea 사업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여러 연구업적을 성취하였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보여줌으로서 전남대 수학과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The 9th International Workshop on Differential Equations 개최 (국제Conference, 2008년 5월 29일 ~ 31일)
- JNU MATH 2007 Workshop and Summer School 개최 (2007년 6월 27일 - 29일)

제26회 전국 대학생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



수학과 3학년 임상섭군(2005학번)은 2007년 11월 3일에 개최된 대한수학회 주최 제 26회 전국 대학생 수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임상섭군의 수상은 서울대, 과기원, 연

세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최초의 수상이라서 그 의미가 더 크고 수학과 교수님들의 지도능력

의 향상 뿐만 아니라 전남대 수학과 학생들의 실력이 서울대, 과기원에 버금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 소식

- 방종파(2006년 박사학위) : 중국해양대 교수 (2007년 3월)
- 이지은(수학과 97학번, 2007년 박사학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
- 김종률(수학과 90학번) : 독일 Augsburg 박사학위, 전남대 BK연구원
- 이기문(수학과 88학번) : 미국미시간주립대 박사학위, 연세대 연구원

2008년 호남 수학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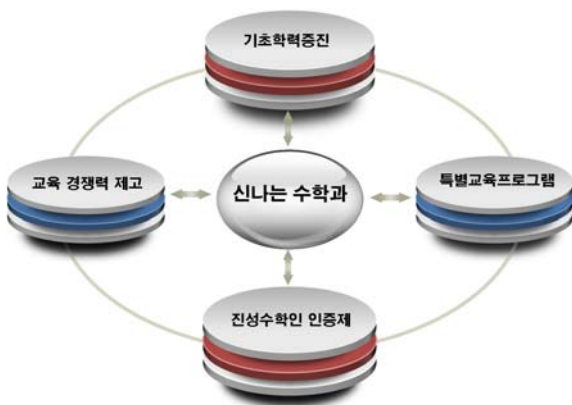
2008년 6월 20일 전남대 수학과에서는 호남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를 전남대에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수학과와 교수,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전공 교육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학과 추진 사업 현황

- 기초 역량 강화 사업
- 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업
- 진성수학인 인증제 추진



다양한 세미나 그룹 운영

- 전공과목 스터디 그룹 운영 : 미적분학, 위상 및 대수 문제풀이, 미분기하 및 복소해석학, 위상수학
- 취업대비 스터디 그룹 운영 : 금융수학, 임용고시 대비, 영어, 이산수학포럼



Summer and Winter Camp

수학과에서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장성수련원에서 학술발표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여 석학 초청 특강, 취업 전문가 특강, 동문초청 특강, 학생 세미나 그룹 연구 발표등을 하고 수학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이튿날에는 전남대 연습림을 돌아서 갯바위로 등산한다.



중국 우수 대학 탐방 및 수학 여행


- 2005년 5월 13~16일 : 중국 상해 푸단대 (인솔교수 : 김동수, 임복희)
- 2006년 5월 18~21일 : 중국 북경, 심양 청화대 (인솔교수 : 곽민규, 박대희)
- 2007년 4월 26~30일 : 중국 북경 북경대 (인솔교수 : 변창호, 주형관)
- 2008년 5월 14~17일 : 중국 상해, 항주, 소주 푸단대 (인솔교수 : 안승호, 조종택)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소식

- 김진학(00)미국퍼듀대학교, 안지현(03)미국 남가주대학교 진학.
- 2005학년도 11명, 2006학년도 17명, 2007학년도 21명 일반대학원 진학.
- 2005년도 7명, 2006년도 8명, 2007년도 4명 교육대학원 진학.
- 임용고시 합격현황
05 ~ 08년도 합계 20명 합격
- 각종 사립학교 취업
- 임상길(99) AIG생명보험본사금융개발팀입사

동문 소식

후배들을 위한 취업이야기..

 강병규동문(91학번, 현대카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91학번 강병규입니다.

제가 97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때와 지금 환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많은 도움은 못 되드리겠지만 제 경험과 저희 회사의 기준에 비추어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정말 정말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학점, 영어점수 등의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의 똑똑함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인사 담당자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창의적인 두뇌와 문제 해결 능력"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회사 신입사원 면접시 질문 내용이 "당신을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 지점에 책임자로 발령을 낸다면, 어떤 마케팅 방법을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주어진 시간내에 분명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훈련은 단기간 내에 되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다방면의 많은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꾸준히 축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현대카드 전산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2학기때 정보통신 관련 학원에서 6개월 준비하고 졸업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1년째, 지금 회사에는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전산실에 직원이 150명 정도이고, 그 중 프로그래머가 약 80명 정도 있는데, 전산학과가 출신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지만 수학과 인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계에서는 전산학과 출신 보다는 수학과 출신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프로그램 구현에 가장 중요한 분석/설계에 있어 논리적인 사고는


수학과 출신들이 훨씬 뛰어나니깐요.

얼마전까지 IT관련 업종이 각광받아서 최근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 있는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래밍 보다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볼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젊은 코볼 프로그래머는 하늘의 별따기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배분들 중에 프로그램 관련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경력 : 상아 데이터시스템 : 1997.01 ~ 2001.11월
현대카드 IT지원실 : 2001 ~ 현재

 이백훈동문(94학번, 현대증권)


안녕하세요. 94학번 이백훈입니다. 취업 경험에 대한 글을 부탁 받고 고민하다가 제가 입사했을 때의 상황이라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회사생활을 통해서 수학전공자로서 느낌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현대증권 파생상품 운용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권회사를 입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선배의 소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증권회사에서 수학전공자를 왜 뽑으려고 하는지 궁금했었고 과연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습니다. 처음 전산실로 발령 받아서 한 일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뭔지 몰랐기에 자료를 찾고 공부하다 보니 결론은 variance 즉 분산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와 개념을 몰랐지만 분산으로 접근해서 보니 남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도 문제

없이 해결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약 학부 때 경제나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웠었다면 쉬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수학을 활용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의 전산실 생활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과연 좀더 수학을 이용하여 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파생상품 운용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운용부라 하면 요새 광고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ELS, ELW 같은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곳입니다. 퀀트(Quant)와 트레이더를 겸하고 있는데 수학적 지식(실 해석학, 함수 해석학, 정수론, 확률론등)과 금융적 지식(경제이론, 금융경제학, 계량경제학, 금융시장분석 등)을 결합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전략을 만들고 실제 증권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관리 기법도 첨단화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수학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퀀트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의 퀀트 대부분이 수학과, 금융공학MBA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업계뿐 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수학과 출신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라는 바다 위를 수학이라는 배로 세상을 향해하는 꿈 어떠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용어 설명

퀀트: Quantitative의 약자로 계량할 수 없는 무언을 계량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퀀트는 어떤 현상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거나 활용해 파생상품의 가치 평가를 하거나 금융시장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고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 등을 합니다.

* 경력

- 1.1994.04 ~ 1998.02 : 전남대학교 수학과
- 2.1998.04 ~ 2000.02 :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응용확률론 전공
- 3.2000.03 ~ 2004.01 : 현대증권 정보시스템부
- 4.2004.02 ~ 현재 :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부

임상길동문(99학번, AIG생명)



안녕하세요. 저는 99년도부터 07년까지 대학생활을 한 수학과 99학번 임상길입니다. 먼저 수학과 News Letter 첫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또한 저의 글이 게재가 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학과장님이신 김정욱 교수님으로부터 취업후기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차마 교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끄럽지만 몇 글자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업계 상품개발부에 입사를 하여 약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아직도 회사생활 적응하기에도 부칩니다. 그래서 단지 후배님들께 간단히 제가 취업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같이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간을 막연히 "취업"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거의 낙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입사한 당시의 저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취업 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금융 등 경제적 지식이 매우 얕아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매일같이 경제 및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 보다 어떤 일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자기소개서를 쓴다 하여도 일관성 있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면 무엇을 할 수 있으니 저 같이 인재를 채용해 달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대기 마냥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다니다 취업하려 한다라는 자신감 없는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면접에서 또한 이와 비슷할 겁니다. 많이 알고 있음으로써 이득이 있다지만 목표의식이 없는 사

람을 누가 믿고 일을 시키려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아무데나 취업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목표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는 것처럼 설레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로 나오는 첫발만큼 부담만큼 기쁨도 크리라 믿습니다. 부디 높이 나는 새가 넓게 보듯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 큰 꿈들을 모두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이야기



윤영윤동문(92학번, 남가주대)

유학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선'후배님들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윤영윤 이라고 합니다.

수학과에서 "흙커밍데이"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93년도 학생회 부회장을 맡았을때 '수학인의 밤' 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화제와 재미있었던 학창시절의 추억거리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억은 언제나 제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시절에 가졌던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우정은 단지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전공분야 소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에서 금융수학이란 학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0년도에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금융수학(금융공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초에만 해도 MBA 과정의 선호도가 월등이 높았지만, 지금은 금융수학(금융공학) 석사과정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금융수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을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금융상품이란 옵션, 선물, 스왑 그리고 기타 파생상품을 지칭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수학의 연구분야가 자리잡고 있는데, 예를들면 이자율 모델링,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용리스크, 신용파생상품등이 금융수학의 핵심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가격의 수학적 모델링은 stochastic process(or Brownian Motion) 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학도 금융수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금융수학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년째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미국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민족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방식을 느끼고 배우는 것은 유학의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저는 여러 미국학생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내고 때로는 함께 볼링을 하러 가곤 합니다. 더욱이 제가 살고 LA는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그리고 리틀토교라는 일본인타운이 있는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합니다. 특히, 할리우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LA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40여분 거리에 산카모니카 해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찾는 장소입니다.

직장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이후에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기회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회란 단순히 작장을 잡는 기회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시야와 미래의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학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기술 습득은 유학의 절대적인 부분이겠지요.

물론 유학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그러한 과정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던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유학의 기회를 준비중인 학생이라면 그런 난관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학경비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미국대학 교육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학비가 면제되며, 매월 연구경력비로 생활비를 보조 받습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년에 \$15,000-\$20,000 정도 지급 받습니다. 유학준비에 있어서는 토플과 GRE 시험이 필수이지만, 무엇보다도 학과 학점이 중요하며, 게다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영어시험은 지겨운 대상이지만, 결국에는 넘어서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미국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사람마다 유학생활의 경험이 다르고 희망과 시련이 교차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포부와 미래를 유학생활을 통해서 개척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유학이란 정말 달콤한 인생의 한 여정이며 자신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첫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영어에 대한 체험담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서널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가장 흔히 접하는 단어가 "땡큐"이다. 슈퍼마켓은 가든, 음식점을 가든 여기저기에서 쉽게 들리는 영어단어 "땡큐". 언제나 써도 우리가 없는 단어 "땡큐". 하루는 친구가 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가는데, 때때로 미국의 캠퍼스 아파트는 비슷비슷하여 자신의 집이 아닌 이웃의 아파트로 들어간다. 때마침, 한 미국 여학생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향하는 도중 친구와 마주치는데, 당연지사 그 여성의 비명은 하늘을 찌르는데, 당황한 친구 어찌할바 모르며 하는 말, "땡큐"...

경력

서울대학교 수학과 석사

보험회사 근무

남가주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추억의 사진들



소중한 만남

Mohammad Taghi Darvishi 교수님



양승민(03학번, 4학년)



Darvish 교수님의 첫인상은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조금은 무서운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우 인자한 표정과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인터뷰 내내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한국에 온 계기..

Darvish 교수님이 계시는 Hohamad Zakarya Razi 대학교에서 2006년에 외국으로 연구차 가실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다. 그것이 계기로 처음엔 친구의 권유로 2007년 9월 물리과로오시게 됐다. 그 후에 수학과에서 초청을 하여 2008년 2월부터 수학과에 계시게 됐다고 한다.

한국 생활에 관하여..

Darvish 교수님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 문제였다고 한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